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December 2025 Issue | Vol. 82

SPECIAL POINTS OF INTEREST

- 필리핀, 2027년까지 목표치 이하 성장 전망 — page 1-2
- 재계, 헌법 개정 추진 재가동 — page 2-4
- 마르코스, 2025년 민간 발전사(IPPs) 재산세 감면 및 체납 처분 면제 승인 — page 4-5
- 사이버보안 경고: 전문가들, 필리핀의 취약성 지적하며 강력한 개혁 촉구 — page 5-6
- 필리핀, 어려운 글로벌 무역 환경 속 2025~2028년 수출 목표 하향 조 — page 6-7
- [Post Article/Photos] 제20회 합동 외국상공회의소 네트워킹 나이트 — page 7-8
- [Post Article/Photos] KCCP 신규 회원 환영 만찬 — page 8-9

필리핀, 2027년까지 목표치 이하 성장 전망

December 04, 2025 | Aubrey Rose A. Inosante | BusinessWorl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필리핀 경제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정부의 성장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화요일 발표한 최신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필리핀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6월 보고서의 5.6%에서 4.7%로 하향 조정했다.

OECD는 또한 2026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6%에서 5.1%로 낮췄으며, 2027년에는 성장률이 5.8%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전망치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5.5~6.5%, 2026~2028년 6~7% 성장 목표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OECD 이코노미스트 시릴 슈웰누스(Cyrille Schwellnus)는 수요일 별도 브리핑에서 “부패 스캔들은 이미 2025년 3분기 경제 활동에 부담을 줬다. 경제 활동을 압박한 경로는 공공 건설 분야였으며, 이는 3분기에 사실상 붕괴했다”고 말했다.

필리핀의 3분기 GDP 성장률은 예상보다 부진한 4%에 그쳤으며, 이에 따라 1~9월 누적 성장률은 5%가 됐다. 이는 가계 최종소비지출과 정부 지출이 부패 사태 속에 둔화된 데 따른 것이다.



Vendors are seen at the Baclaran Market in Parañaque City. — PHILIPPINE STAR/RYAN BALDEMOR

그는 “이 낮은 성장률은 2025년뿐 아니라 2026년의 연간 성장률도 끌어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슈웰누스 씨는 성장 전망치가 부패 스캔들이 비교적 신속히 해결되고, 공공 조달 과정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 투자와 투자자 신뢰가 얼마나 빨리 회복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OECD의 최신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필리핀은 올해 베트남(8.2%), 말레이시아(5%), 인도네시아(5%)에 이어 동남아에서 네 번째로 빠른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에는 필리핀이 베트남(6.2%)에 이어 동남아에서 두 번째로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에는 필리핀과 베트남이 각각 5.8% 성장률을 기록하며 지역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필리핀 경제가 점차 성장 경로로 복귀하겠지만 “하방 위험이 우세하다”고 진단했다.

OECD는 “민간 소비는 견고한 노동시장과 안정된 물가에 힘입어 지지를 받고 있지만, 공공사업과 연계된 부패 스캔들로 인해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집행이 지연되면서 투자는 약화됐다”고 밝혔다.

OECD는 전체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가 고용 증가에 따른 실질소득 개선과 물가 완화에 힘입어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계 최종소비지출은 올해 4.7% 증가해 2024년의 4.9%에서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6년에는 5.1%, 2027년에는 5.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Cont. page 2]

필리핀, 2027년까지 목표치 이하 성장 전망

[Cont. from page 1]

OECD는 “부패 통제를 강화하면서 나타나는 공공투자의 예상보다 지속적인 부진과 투자자 신뢰 약화는 2026년 국내 수요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차입 비용이 낮아지고 공공 투자가 재개되면 향후 몇 분기 동안 투자가 소폭 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글로벌 불확실성과 외부 수요 약세로 인해 수출 모멘텀 둔화가 회복세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최근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는 더 많은 자본 유입을 끌어들이어 수출 역풍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슈펠뉴스 씨는 OECD가 필리핀의 성장 제고를 위해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핵심 분야를 파악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비임금성 노동비용의 완화와 고용 규정의 현대화 등이 포함된다.

그는 “전기, 통신, 운송 분야의 경쟁을 제한하는 장벽이 존재한다. 이러한 장벽을 더 낮춘다면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민간 부문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

한편 OECD는 올해 필리핀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평균 1.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필리핀중앙은행(BSP)이 2026년 기준금리를 4.25%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국내 수요 부진 속에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억제된 상태를 유지하겠지만, 식품 및 에너지 가격 효과가 사라지고 최근 환율 약세가 국내 물가로 전가되며 성장세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중앙은행 목표 범위의 중간값으로 서서히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망치는 BSP의 2025년 인플레이션 예상치(1.7%)와 올해 1~10월 평균치보다 다소 낮다.

OECD는 목표치 밑도는 인플레이션, 약한 수요 측 압력, 둔화하는 성장세 등을 고려할 때 중앙은행이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2026년 정책금리는 4.2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엘리 M. 레폴로나 주니어 BSP 총재는 수요일 브리핑에서 성장 전망 악화가 12월 11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검토할 여지를 마련해 준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은 2024년 8월 완화 사이클을 시작한 이후 기준금리를 총 175bp 인하해 현행 정책금리는 3년 만에 가장 낮은 4.75% 수준이다.

또한 OECD는 정부가 재정적자 축소를 추진하면서 2027년까지 재정정책이 “다소 긴축적(moderately restrictive)”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를 1조 5,600억 페소(국내총생산의 5.5%)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8년에는 적자를 1조 5,500억 페소(4.3%)로 더 축소할 계획이다.

OECD는 “공공부채를 보다 견고한 하향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2026년에 재정 통합 속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며 “재정정책이 2026년에 다소 긴축적으로 전환되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거시경제 정책 조합은 대체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12/04/716404/phl-may-grow-below-target-until-2027/](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12/04/716404/phl-may-grow-below-target-until-2027/)

재계, 헌법 개정 추진 재가동

December 03, 2025 | Jovee Marie N. de la Cruz | BusinessMirror

BusinessMirror
A broader look at today's business

현지 및 외국 기업인들은 수요일 헌법 개정 추진을 재개하며, 필리핀이 급속히 통합되는 글로벌 경제에 발맞추려면 경제 및 정치 시스템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헌법개정위원회(House Committee on Constitutional Amendments)의 첫 공개 공청회에서 필리핀상공회의소(PCCI) 회장 조지 바르셀론(George Barcelon)은 민간 부문이 여전히 투자 환경을 강화하는 헌법 개혁에 열려 있으며, 경제 관련 개정안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nt. page 3]

재계, 헌법 개정 추진 재가동

[Cont. from page 2]

“우리의 입장은 국가에 이익이 되는 모든 변화에 대해 지지적이다” 라고 바르셀론 회장은 의원들에게 전하며, PCCI가 오랫동안 경제적 제약 완화를 위해 활동해왔음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경제 조항과 관련된 변화에 매우 개방적이다. 다른 사안들은 헌법회의(Con-Con)나 구성원회의(constituent assembly)를 통해 처리할지 여부를 입법자들의 지혜에 맡긴다” 고 덧붙였다.

바르셀론 회장은 최근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Act), 소매무역자유화법(Retail Trade Liberalization Act),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Act) 등 다양한 자유화 법안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이 여전히 베트남 등 이웃 국가들에 비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높은 전력비용, 비싼 물류비용,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hollowing out)”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들을 지적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소비경제이며, 해외 근로자의 송금에 의존하고 있다” 고 말하며, 필리핀이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아세안 회원국과의 무역 적자가 400억 달러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바르셀론 회장은 인공지능 발전으로 인해 BPO(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산업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으며, 농업과 고등교육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지원을 촉구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국 기업들이 안정적인 규제 환경과 사업 용이성을 이유로 필리핀 경제구역(Philippine Economic Zones Authority, PEZA)에 계속 입주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성공 요인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필리핀 외국인상공회의소연합(Joint Foreign Chambers of the Philippines, JFC)은 1987년 헌법 개정안, 특히 수십 년간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를 막아온 제한적 경제 조항 삭제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재확인했다.

캐나다 필리핀상공회의소 회장 크리스토퍼 일라간(Christopher Ilagan)은 JFC가 헌법에 명시된 엄격한 외국 지분 제한 규정의 개정 또는 삭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제한 조항은 “경직되고 구식” 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일라간 회장은 “필리핀 외국인상공회의소연합은 1987년 필리핀 헌법 개정 및 수정, 특히 제한적 경제 조항 삭제를 강력히 지지한다” 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제한 조항은 경직되고 구식이다. 헌법에 경직된 경제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부는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국제 조약의 요구를 충족하며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활용할 유연성을 상실했다” 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제한 조항의 상당수가 1935년과 1973년 헌법에 뿌리를 둔 민족주의적·보호무역적 관점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오늘날 글로벌 경제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필리핀이 현재 글로벌 무역에 깊이 통합되어 있고 다수의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입한 상황에서, 일라간 회장은 이러한 제한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국가의 최선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제한 조항은 국가 경쟁력을 저해한다” 며 “투자를 감소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줄이며, 인프라 수준을 낮추고, 포용적 발전을 저해한다” 고 말했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주요 국제기관들은 필리핀을 외국인 투자 규제 측면에서 가장 제한적인 경제국 중 하나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으며, JFC는 이러한 문제는 헌법상의 장벽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만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 개정 방식과 관련해서—헌법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나 구성원회의(Constituent Assembly)를 통해서든—일라간 회장은 의회에 판단을 맡긴다며 “이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들의 지혜에 의존한다” 고 밝혔다. 그는 또한 JFC가 포괄적인 입장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정책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조항에 “법률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unless otherwise provided by law)” 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지지해 왔다고 덧붙였다.

아랑카다 필리핀 프로젝트(Arangkada Philippines Project) 및 미국 필리핀상공회의소(American Chamber of Commerce of the Philippines)의 정책 참여 전문가 마리에엘 앤젤라 소리아노(Marielle Angela Soriano)도 JFC의 통일된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호주-뉴질랜드, 캐나다, 유럽, 일본, 한국 상공회의소 및 PAMURI를 대표해 발언한 소리아노는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한 헌법적 제한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반복해서 밝혔다.

[Cont. page 4]

재계, 헌법 개정 추진 재가동

[Cont. from page 3]

“헌법상의 장벽을 제거하면 여전히 투자가 제한적인 분야에서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소리아노는 말했다. 그녀는 이러한 조치가 개정된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Act),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s Act), 소매무역자유화법(Retail Trade Liberalization Act) 등 이전 자유화 법안과도 상호 보완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정부가 국가 이익을 보호해야 하지만, 많은 국가들은 이를 영구적인 헌법 조항이 아니라 법률이나 행정 규제를 통해 달성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정부가 “기술 변화, 국제적 약속, 새롭게 나타나는 글로벌 기회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소리아노는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제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국내외 투자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며, “투자 환경에서 명확성, 유연성, 개방성을 제공하는 것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자유재단(Foundation for Economic Freedom, FEF) 회장 칼릭스토 치키암코(Calixto Chikiamco)는 헌법상의 결함이 경제 분야를 넘어 깊이 정치적이라고 지적했다.

치키암코 회장은 의회가 필리핀의 “구조적 문제”에 맞서려는 의지를 환영하며, 단순히 부패만이 취약한 거버넌스와 경제 성과 저하의 근본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문제는 30년 이상 전에 제정된 헌법의 결함에서 비롯된다”고 말하며, 2028년 헌법회의(Con-Con)를 지지했다. 이는 전국 선거와 맞물려 광범위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가 제안한 개혁안에는 모든 ‘필리핀인 전용(Filipino-only)’ 및 ‘필리핀인 우선(Filipino-first)’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조항들이 의도치 않게 독점과 과점 체제를 조장해 왔다고 그는 지적—, 강력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정당 시스템 구축으로 개인 캠페인 자금 의존도를 줄이는 것, 헌법을 간소화하여 기술적 사항은 법률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사회 정의 조치를 토지 재분배가 아닌 교육 중심으로 재편하여 미래 세대에 보다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치키암코 회장은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대만, 중국 등 강력한 정당 체제를 가진 국가들이 정책의 지속적 연속성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강력한 정당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가문이 계속 지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12/03/business-leaders-activate-move-for-charter-change/](https://businessmirror.com.ph/2025/12/03/business-leaders-activate-move-for-charter-change/)

마르코스, 2025년 민간 발전사(IPP) 자산세 감면 및 체납 처분 면제 승인

December 04, 2025 | Louella Desiderio | The Philippine Star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독립 발전사(IPP)가 2025년에 사용하는 부동산, 기계 및 장비에 부과되는 재산세(RPT)와 특별교육기금(Special Education Fund)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전력 공급과 정부 재정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납 및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11월 28일 발령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EO) 제106호를 통해 2025년 모든 재산세

부채액을 감면했다. 여기에는 민간 발전사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운영하는 발전 시설과, 정부 소유·관리 기업(GOCCs)과 체결한 유사 계약에 대해 지방자치단체(LGU) 및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이 2025년까지 매년 평가한 특별세도 포함된다.

EO 106호에 따르면, 해당 부채액은 “부동산, 기계 및 장비의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의 15%를 기준으로 연 2%씩 감가상각한 금액에서 IPPs가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세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액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Cont. page 5]



Pres. Ferdinand Marcos Jr.
PCO photo

마르코스, 2025년 민간 발전사(IPP) 재산세 감면 및 체납 처분 면제 승인

[Cont. from page 4]

IPPs가 감면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모든 재산세는 이후 연도의 재산세 납부액으로 적용된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또한 해당 IPPs의 부족 재산세(RPT) 부채에 대한 모든 이자와 과태료를 면제했다.

1991년 지방자치법(Local Government Code) 또는 공화국법(RA) 7160에 따르면, 공익상 필요할 경우 대통령은 수도권 내 지방자치단체나 도·시의 재산세 및 이자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대통령은 내무지방자치부(DILG)가 재무부(DOF)와 협력하여 관련 LGU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DOF는 행정명령 발효 후 6개월 내 시행 경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령받았다.

행정명령은 일부 LGU가 IPPs가 GOCC가 누리는 재산세 관련 면제와 특권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IPPs를 대상으로 과세 및 공매를 포함한 집행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EO는 IPPs가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지만, 과세된 세액의 상당 부분이 BOT 방식과 유사 계약에 따라 국가전력공사(NAPOCOR)/전력부문자산부채관리공사(PSALM)에 의해 계약상 부담되어 있어 국가 신용을 보장받는다고 명시했다.

LGU법은 전력 생산 및 송전에 종사하는 GOCC도 재산세와 관련하여 면제와 특권을 누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토지, 건물, 기계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해 10%의 과세율 적용과 전력 생산 및 송전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 및 장비, 오염 방지 및 환경 보호에 사용되는 기계와 장비에 대한 면제가 포함된다.

EO 발령 이전, 재무부(DOF)는 관련 LGU가 최대 과세 수준인 80%로 산정된 올해 재산세를 징수할 경우, NAPOCOR/PSALM에 막대한 직접 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재정 안정성, 정부의 재정 통합 노력, 에너지 가격 안정성에 위협이 되고, 모든 산업 부문에 걸쳐 교차채무 및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corporate/marcos-greenlights-ipps-real-property-tax-cuts-penalties-condonation-for-2025/>

사이버보안 경고: 전문가들, 필리핀의 취약성 지적하며 강력한 개혁 촉구

December 04, 2025 | Dexter Barro II | Manila Bulletin

최근 보안 사고로 민감한 데이터가 심각하게 노출된 가운데,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은 필리핀 정부가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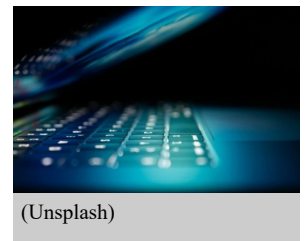
필리핀 사이버보안 전문가협회(PICSPro)는 필리핀이 “사후 대응적이고 단편적이며 형식적인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앤젤 레도블(PICSPro 회장)은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상황은 수년간의 투자 부족, 협력 부재, 잘못된 우선순위 설정의 결과”라고 말했다.

“사이버보안은 국가 안보이자 경제 안보이며 공공 안전과 직결된다. 이를 단순한 홍보(PR) 활동으로 다룰 수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레도블 회장은 과학기술부(DOST)에서 발생한 대규모 데이터 유출과 같은 최근 보안 사고가 심각한 보안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 규모라면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정부 차원의 감사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그런 조정된 조치는 전혀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Cont. page 6]



(Unsplash)

사이버보안 경고: 전문가들, 필리핀의 취약성 지적하며 강력한 개혁 촉구

[Cont. from page 5]

또한, 내무지방자치부(DILG) 시스템 데이터 해킹 사건이 보고된 것은 필리핀의 사이버보안 체계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무시할 수 있는 개별적 실수가 아니라, 보다 깊은 구조적 취약성의 징후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레도블 회장은 따라서 전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법률, 표준화된 보안 프로토콜, 국가 차원의 통합 사고 대응 시스템, 지속적인 인적 역량 개발을 포함한 다중 축(mult-pillar)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기반이 없으면 필리핀은 국내외 사이버 위협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남을 것” 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레도블 회장은 이러한 노력이 강력한 정책, 일관된 기준,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 고도로 훈련된 사이버보안 인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적 접근법(whole-of-nation approach)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사이버 위협이 이제 초국가적(transnational)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필리핀이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레도블 회장은 “우리의 목표는 필리핀에 진정으로 회복력 있는 사이버보안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 기관, 경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필요한 것은 조각난 프로젝트가 아닌 조정된 개혁이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세대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라고 강조했다.

Source: <https://mb.com.ph/2025/12/04/mgen-gilbert-llanto-receives-ica-ap-coop-excellence-award-2025-for-inspirational-leader-category>

필리핀, 어려운 글로벌 무역 환경 속 2025~2028년 수출 목표 하향 조

December 05, 2025 | Logan Kal-El M. Zapanta | Philippine Daily Inquirer



마닐라, 필리핀 — 미국 관세 불확실성과 글로벌 운송 차질 속에서 수출 부문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필리핀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의 수출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수정된 전망에 따르면, 올해 수출액은 1,108억~1,13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필리핀 수출개발계획(PEDP) 2023-2028에서 제시한 목표 1,636억 달러 대비 30.68%~32.27% 감소한 수치다.

2026년에는 조정된 수출 목표가 1,161억~1,202억 달러로, 이전 목표 대비 35.62%~37.81% 낮아졌다.

2027년 목표 역시 1,233억~1,274억 달러로 수정되었으며, 이는 이전 목표 2,121억 달러 대비 39.93%~41.87% 감소한 수치다.

PEDP의 마지막 해인 2028년 수출 목표는 1,328억~1,351억 달러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이전 목표 대비 43.83%~44.78% 낮은 수준이다.

업데이트된 전망의 상한선은 보다 보수적인 PDP 목표에 부합한다.

하향 조정 이유

필리핀 무역산업부(DTI) 수출마케팅국 국장 비앙카 사이킴트(Bianca Sykimte)는 변동성이 큰 글로벌 상황 속에서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고정 수치 대신 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이킴트 국장은 지정학적 긴장, 미국 관세 불확실성, 2023년과 2024년 파나마 운하 가뭄 등 글로벌 운송 차질을 하향 조정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했다. [Cont. page 7]

필리핀, 어려운 글로벌 무역 환경 속 2025~2028년 수출 목표 하향 조

[Cont. from page 4]

“처음 2년 만에도 수출 목표를 크게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표를 재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2년간 성장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라고 비앙카 사이킴트(DTI 수출마케팅국 국장)는 목요일 국립수출회의(National Export Congress)에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또 다른 도전 과제로는 수출업체 수가 1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점이 꼽혔다.

‘보다 현실적인 목표’

필리핀수출업자연합회(Philexport) 회장 세르지오 오르티즈-루이스 주니어(Sergio Ortiz-Luis Jr.)는 목표 하향 조정을 “보다 현실적인 목표”로 환영하며, 현재 무역 환경에서는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루이스 회장은 기자들에게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고려하면 더 현실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그 목표조차,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완화하기 전까지는 의심스러웠다”고 덧붙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코코넛을 포함한 200개 이상의 필리핀 주요 수출 농산물을 관세 면제 대상으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루이스 회장은 강력한 수출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정부가 수출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봐 주기를 항상 바라고 있다. 현재 거의 투자 지원이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수출을 진지하게 다루고 싶다면, 실제로 투자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킴트 국장은 앞서 필리핀이 2025년 수출 목표 1,134억 2천만 달러를 달성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앞으로 사이킴트 국장은 세계은행(World Bank)과 계획 중인 ‘COMPETE Plus for SMEs’ 프로젝트가 2027년부터 산업에 “상당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조건부 대출, 보조금, 기술 지원을 약속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62212/ph-slashes-2025-2028-export-goals-amid-challenging-global-trade>

[Post Article] 제20회 합동 외국상공회의소 네트워킹 나이트



L-R: JFC Representatives, Ms. Nadine Gatdula- Amcham's Project Officer and Forum Assistant Manager, Mr. Chris Ilagan- Cancham President, Mr. Joaquin Reloj- ECCP's Industry & Gov't Affairs Manager, Mr. Nobuo Fujii- JCCPI Vice President and Mr. Samuel Chun- KCCP Vice President

공동 외국 상공회의소(Joint Foreign Chambers)는 2025년 11월 27일, 더 벨뷰 호텔 알라방(The Bellevue Hotel Alabang)에서 제20회 공동 외국 상공회의소 네트워킹 나이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비즈니스 리더, 전문가, 그리고 다양한 외국 상공회의소 회원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국제 비즈니스 커뮤니티 내에서 새로운 인연을 다지는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협업과 새로운 파트너십 형성을 장려하는 여유롭고 생산적인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행사는 참석자들을 위한 흥미로운 경품 추첨으로 마무리되었으며, 다중 상공회의소 모임이 비즈니스 네트워크 강화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에서 활동하는 250명의 참석자와 함께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KCCP 회원사 중에서는 Kepco Philippines, Jinu Business Outsourcing Services, Inc., Megatrends I & C Corporation 등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KCCP는 이번 행사를 후원해주신 Veratech, Inc., Astoria Hotel and Resorts, BICM Genesis Freight International Inc.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Cont. page 8]

[Photos] 제20회 합동 외국상공회의소 네트워킹 나이트



(R-L) Kepco President & CEO Mr. Jeon, Yong Su and General Manager Mr. Kim, Kilwon



KCCP Guests from Astrid Defense Inc., Mr. Jin Lee, President and VP Mr. Charlie Park



With other guests



With other guests

[Post Article] KCCP 신규 회원 환영 만찬

필리핀 한국상공회의소(KCCP)는 2025년 12월 3일 최가든 레스토랑(Choi Garden Restaurant)에서 2025 신규 회원 환영 만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신규 회원사들에게 KCCP의 미션, 프로그램 및 주요 활동을 소개하고, 기존 회원 및 KCCP 임원진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행사 중 KCCP는 참석한 모든 회원사에 **회원 증명서(Certificate of Membership)**를 수여하며 공식적으로 조직의 일원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저녁 만찬은 2025년 신규 회원을 환영하며 협업을 촉진하고 비즈니스 관계를 강화하려는 KCCP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해 KCCP는 총 15개의 신규 회원사를 맞이했습니다. 신규 회원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Hitejinro Philippines Inc., Doosan Energibility, Daekim K Sports Corporation, Wuijump Leisure Inc., Samsung Electronics Phils., Corporation, KTP Services, Inc., Megaworld Global-Estate Inc., Infinite Vida Global Corporation, Informed Works Architecture and Research, I.F., Midorasia Inc., Responsible Internet Sustainability Effort Inc., Philippine Transmarine Carriers, Inc., Jinu Business Outsourcing Services, Inc., Cycle Trend Industries Philippines Inc., Authority of the Freeport Area of Bataan.

이번 만찬에는 KCCP 회장 엄현중(Samdo Philippines Corp)님, 부회장 천주완(CTK Asia Rubber Corp), 천상구(Megatrends I&C Corporation), 이사 전국일(HJ Shipbuilding & Construction Co. Ltd.)님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Cont. page 9]



[Photos] KCCP Welcome Dinner for New Members



KTP Services, Inc.
Mr. Hang Jun Cho
CEO.



Wijump Leisure Inc.
Mr. Youngmin Roh
President



Philippine Transmarine Carriers, Inc.
Mr. Marcus Leslie Suntay
Head of Strategy, PTC Shipping



Daekim K Sports Corporation
Mr. Dae Hyeon Kim
President



Cycle Trend Industries Inc.
Mr. Wonyeong Seo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Infinite Vida Global Corporation
Ms. Norweijann C. Cruz
Treasurer



Megaworld Global-Estate Inc.
Representatives
Ms. Harlyne Yap-Casimiro and Ms.
Raisy De Guzman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SGV |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SGV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 2024 SGV Corina Velayo & Co. All Rights Reserved.

How will business move faster to slow climate change?


It will take business and government working together to reverse climate change.

Find out how SGV can help you reframe the future to create a better, more sustainable working world.

■ ■ ■

**The better the question. The better the answer.
The better the world works.**

In everything we do, we nurture leaders and enable businesses for a better Philippines.
#SGVforABetterPhilippines
www.sgv.ph



Scan to access
SGV's Sustainability Report, Doing Business and other publications